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 - 1
변화산새벽기도회 안내

이번 변화산 기간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주의 기도라 불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로서
우리를 올바른 기도생활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2022-1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주제가

나의 하나님

CM7 C/E F CM7 C/E F 나의

C Dm7 G7 C Dm7 G7

사랑- 너는 어 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 보 다귀-하-다- 네가
 사랑- 이사 랑 은결-코 변- 치않-아 모든- 계절 돌 -보-시-네- 풀은

F G7 C G/B Am7 Dm7 F/G

사 랑스- 럽지- 않을-때너를 온 전히- 사랑-하고 - 너와 함 께하-려 내 가 왔 노
 마 르고-꽃은- 시드-나주의 말 씀은- 신실-해- 실수 가 없으-신 주 만 바 라

C F/C I.C 2.C F G/F

-라- 주의 주님 의 나 라 - 와 - 뜻 이 - 나 의 삶 속
 -라-

Em7 Am7 Dm7 F/G C

-에- 임 하시 -며- 주님알기 --를- 주만보기 --를- 소 망해 -

F G/F Em7

거룩 히 살 아 - 갈 - 힘 과 - - 두려 없 는 믿 --음- 주 실

Am7 Dm7 F/G C

- 나 의 하 나 --님- 완 전 한 사 --랑- 찬 양 해 - Fine

C F C/E Dm7 C

- 찬양하리 - 만군의주 - 영원히함 - 깨하-시 네 - 존귀하신

F C/E F F/G C D.S. al Fine

- 사 랑 의 왕 - 영 원 히 통 - 치 하 - 시 네 - 주 님 의 나 라

2022-1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주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E\flat$ $Fm7/E\flat$ $E\flat$ Fm $Fm7/E\flat$ $B\flat sus4$ $B\flat7$
 이 세 상 을 살 아 가 는 동 안 에 — 나 의 힘 을 의 지 할 수 없 으 니 —
 주 의 길 을 걸 어 가 는 동 안 에 — 세 상 의 것 의 지 할 수 없 으 니 —

5 $Gm7$ $C/F\flat$ $Fm7$ $A\flat m6$ $E\flat/B\flat$ $B\flat7$ $E\flat$ $A\flat/B\flat$
 기 도 하 고 낙 심 하 지 말 것 은 — 주 께서 — 참 소 망 이 — 되 심 이 — 라 — 하 나 님 의
 감 사 하 고 낙 심 하 지 말 것 은 — 주 께서 — 참 기 뵈 이 — 되 심 이 — 라 —

9 $E\flat$ $/D$ $Cm7$ $Fm7$ $Fm7/E\flat$ $A\flat/B\flat$
 꿈 이 — 나 의 비 전 이 되 고 예 수 님 의 성 품 이 나 의 인 격 이 되 고 성 령

13 $Gm7$ $C/F\flat$ $Fm7$ $A\flat m6$ $E\flat/G$ $B\flat7/F$ $A\flat/E\flat$ $E\flat$
 님 의 권 능 이 — 나 의 능 력 이 되 길 — 원 하 고 — 바 라 고 — 기 도 합 니 다 —

2022-1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참여방법

변화산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

변화산 후드티를 입고 참여해보세요.

변화산에 임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단체 후드티를 준비했습니다.
변화산 후드티를 입고 변화산에 참여해보세요.



삶의 기도처를 나누세요!

변화산 기간 중 나만의 기도처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기도장소가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나만의 기도장소를 만들고
인증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 ex 서재, 차 안 등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석 & 기도제목을 나눠보세요!

QR코드를 활용해 출석체크 해주세요. 매일 참여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기도제목을 나눠 주세요.
오프라인은 기도봉투를 사용해서, 온라인은 기도제목 QR코드를 이용해주세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누어주시면 교역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국 학생 및 어린이는 교육국 전용 출석체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기도제목QR코드



변화산출석QR코드

PC, 스마트폰 배경, SNS프로필 사진을 변화산새벽기도회 이미지로
꾸며보세요.

배경화면 이미지는 만나교회 홈페이지 manna.kr
모바일페이지 m.manna.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Lord's
Prayer

2월 26일(토)-27일(주일) 기도에 대해 질문하기

마태복음 6:5-8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용한 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신가?

내 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의지하며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2월 28일(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기도하기

마태복음 6:16-18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이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관심을 위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그저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도 중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3월 1일(화)
올바르게 기도하기

마태복음 6:14-15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 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 지는 길입니다. 친밀해지는 길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용서하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와 남을 비난하는 기도 중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3월 2일(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분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3월 3일(목)

하나님의 뜻 구하기

마태복음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과 무질서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로 하루를 보내 보는 것이 어떨까요?

3월 4일(금)
용서구하기

마태복음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영의 비결은 용서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입은 상처를 안고 살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용서받은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3월 5일(토)
인도하심 구하기

마태복음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깊이 공부하고 말씀을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산 이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노트 활용법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구체적인 기도 내용 혹은 기도하다 떠오르는 생각, 성경말씀 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다짐과 기도, 고백을 기록해 보세요.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했던 고백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2022년 02월 27일 주일 ☀️ ☁️ ❄️ 🌧️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의 신앙에 대해 돌이켜 봅니다.

변화산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the Lord's
Prayer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달린 기도를 하는 것이다
말달린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김병삼 목사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the}Lord's
Prayer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것에든지 감사하라
D.L. 무디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the Lord's
Prayer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월리엄 거넬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the}Lord's
Prayer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내는 편지다
매튜 헨리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the}Lord's
Prayer



자주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희생
사탄에게 해지는 채찍이기 때문이다
존번연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2022년 월 일 요일 ☀ ☁ ☁ ☔

하타님을 향한 나의 고백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he Lord's Prayer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